

02

함께하는 공간

휴(休) 36

장성인(人) 38

女風당당 42

이돈삼의 여행길 44

6차 산업이 뜬다 48

창작마당 50

이재현의 시골풍경 54

문화관광해설사가 들려주는 장성 이야기 56

03

뉴스 인 장성

배움터 58

농산물 데이 62

귀농귀촌 64

한컷뉴스 68

의정소식 74

우리 마을 이모저모 78

한방 이야기 90

게시판 92



장성의 집 이야기

장성군의 주거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에서부터 테마형 주택, 은퇴자와 귀농 ~~귀촌~~ 귀촌인을 겨냥한 주택단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이 조성돼 왔고,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성과에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재직시절부터 장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유두석 군수의 손길이 닿아 있다. 모두가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장성의 집 이야기를 찾아 떠나본다.



1 ~~차~~ 2 ~~차~~ 3차 LH아파트

1차 영천LH아파트는 군(郡)단위에서 최초로 지어진 임대아파트로 유두석 군수가 건설교통부 재직 당시 고향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유 군수의 남다른 열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2006년 12월 330세대가 입주했다.

그리고 2007년 민선 4기 장성군수 재임 당시, 나노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 수요량 증가에 맞춰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을 신청해 456세대 규모의 2차 영천LH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추진됐다.

군은 지난해 1, 2차에 이어 3차 LH임대아파트 유치에 성공했다. 그동안 유두석 군수는 ‘제3차 임대아파트 유치’를 민선 6기 공약 사항으로 추진해 오며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LH공사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왔다. 그 결과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150세대 규모의 3차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 1, 2차 영천LH아파트

- 위치 : 장성읍 영천리 일원
- 규모 : 총 786세대(1차 330세대, 2차 456세대)

- 3차 LH임대아파트

- 위치 : 장성읍 일원
- 규모 : 150세대
- 사업기간 : 2016. 1. ~ 2019. 12.
- 문의 : 061) 390-7431
(경관도시과 경관도시담당)



공공실버주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민선 6기 유두석 군수님은 전국 최초로 공공실버주택을 유치했다. 공공실버주택은 지역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로 건립비와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당초 100세대 규모로 사업이 확정됐으나, 유군수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규모가 150세대로 확대됐다.

- 위 치 : 장성읍 영천리 보건소 인근
- 규 모 : 150세대
- 입주대상 선정기준 : 장성군내 거주자로서

65세 이상 저소득층(국가 유공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 소득 절반 이하 자 등)

- 문 의 : 061) 390-7475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장성 사랑의 집

공동주택「사랑의 집」은“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인복지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선 4기 유두석 군수가 추진한 노인복지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였다. 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수도권 지역에서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비수도권 최초로 장성군에 유치한 사례다. 군이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대한건설

단체총연합회가 자금을 지원해 38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마련됐다. 현재 36명의 무주택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 위치 : 장성읍 청운길 55

- 규모 : 38호 / 호당 원룸 26㎡(약 8평)
- 입주방법 : 무상임대(관리비용은 자부담)
- 입주정원 : 38명(무주택 독거노인)
- 입주대상 선정기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년 이상 장성군 계속거주자로
무주택 독거노인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 월별 공공요금 390,744원 가능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장성드림빌

「장성드림빌 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민선 4기 이청 군수시절,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성드림빌은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총 438억 원을 투입해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주택 200호와 복지시설을 갖춘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됐다. 당시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5개 지자체 중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위 치 : 삼서면 유평리 일원
- 조성규모 : 주택 200세대(분양 70세대, 임대 130세대), 다목적 센터 등
- 입주신청 자격

•기본자격

- 입주공모일 기준 만25세 이상~만55세 이하인 자로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영농을 예정하여 갖추기로 계획한 자

•세부자격

- 장성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거주 출향자녀
- 장성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거주자
-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규모, 연령조건예외)
- 장성지역 거주 농어업인

- 문의 : 061) 390-7357 (경과도시과 저위마을담당)



황룡행복마을

「황룡행복마을」은 2007년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행복마을 조성계획에 따라 장성군이 도내 최초로 유치 ~~W~~ 조성한 한옥마을이다. 「자연 속의 도시적 삶」을 테마로 한 한옥전용 주거단지로 전기, 통신, 도시가스시설이 지중화 돼 있으며, 단지 중앙에는 1만 1천㎡ 규모의 공원이 조성돼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4년간 지지부진했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유두석 군수가 적극 나선 결과, 기아자동차 광주지부와 20세대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양완판에 청신호가 켜졌다.



- 위 치 : 황룡면 장산리 일원
- 주요시설 : 한옥 단지 116호, 공원, 한식정자 등
- 문 의 : 061) 390-7357 (경관도시과 전원마을담당)

전원마을(남면 덕성, 북이 신평, 삼서 수양)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귀농 ~~W~~ 귀촌 인구 증가, 주택 선호도 상승 등의 추이를 반영한 전원마을 조성이 북이면 신평지구와 삼서면 수양지구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한 남면 덕성리에 행복마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 남면 덕성행복마을
 - 위 치 :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 주요시설 : 임대주택, 단독주택, 한옥주택 등 867세대
- 북이면 신평전원마을
 - 위 치 : 북이면 신평리 산15번지 외
 - 주요시설 : 주택 30호, 마을회관 1
- 삼서면 수양전원마을
 - 위 치 : 삼서면 수양리 산13번지 외

황룡강 르네상스



황룡강이 청정하천으로, 장성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다. 강(江) 본연의 치수 ~~수~~ 이수 기능에 노란색 마케팅을 더해 황룡강을 힐링, 체험, 관광의 명소로 재탄생시킬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물과 사람, 자연의 가치를 담은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취암천

3구간 - 용의 몸통
장성대교 ~ 문화대교

우리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황룡강’에 지역을 수호하는 누런 용이
 살았다는 전설에서 노란색과 황룡강 그리고
 장성이 숙명적인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황룡강을 군민 여러분과 관광객들의 휴식처이자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황룡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흐르는
 황룡강을 5개 테마로 나눠 이야기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꾸며집니다.



2구간 - 용의 앞발

개천, 황룡강 합류부

1구간 - 용머리

황미르랜드

1구간 용머리(황미르랜드)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황미르랜드에는 ‘열린 공간, 함께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이라는 테마로 ▲여의주 광장 ▲락(rock)가든 ▲이야기 정원 ▲세계 초화원 ▲생태체험장 ▲오감 놀이터 ▲황미르 습지원이 조성됩니다.



여의주 광장

2구간 용의 앞발(개천, 황룡강 합류부)

용의 앞발에 해당하는 개천, 황룡강 합류부에는 개천인도교와 황금알 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개천인도교

3구간 용의 몸통(장성대교~ 문화대교)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성대교에서부터 문화대교에 이르는 구간에는 사계절 노란 꽃이 피는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서삼교에는 장미터널이 꾸며집니다. 또한 황룡강의 풍광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는 데크로드와 전망대도 설치됩니다.



전망대

4구간 용의 뒷발(문화대교~황룡대교(취암천 구간))



용의 뒷발 형상을 하고 있는 문화대교부터 황룡대교 구간에는 공설운동장, 생태하천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장성문화시설사업소 앞쪽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취암천의 물길을 돌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계절 내내 노란색 물결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황룡강을 따라 걸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돌릿길과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어 할 만한 명품 자전거도로 등이 조성됩니다.

이와 같은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파리의 센강, 서울의 한강처럼 황룡강이 지역민에게는 휴식처가 되고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장성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황룡강의 변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옐로우 시티 프로젝트 팀 (왼쪽부터 이권승, 박언정 팀장, 주태환)

옐로우시티 장성,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장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색 마케팅으로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2월 전담팀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을 신설했다. 박언정 팀장과 이권승, 주태환 2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장성군의 옐로우시티 조성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박언정 팀장을 만나 들어봤다.

Q. 지난 1년 간 ‘옐로우시티 장성’ 조성에 수고가 많았다.

박) 노란색 위주의 꽃을 심어 장성을 새롭게 만들어보자고 한 데서 출발한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이 지난 1년 간 많은 성과를 냈다. 「광주 ~~시~~ 전남 스타브랜드 대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도 받았고, 개인적인 영광도 얻어 힘든 줄 모르고 지나왔다. 또 군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옐로우시티’ 조성에 동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큰 힘을 얻었다.



Q. 프로젝트팀이 신설됐다. 주요 임무는?

박) 프로젝트팀은 옐로우시티 업무를 총괄한다. 옐로우시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옐로우시티 디자인분야 조례 제정,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협치) 관리, 지식재산권 출원,

Q. 옐로우시티 조성을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던데?

박) 1970년대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이 펼쳐졌다. 마을사람들 전체가 참여해 농촌 재건운동을 추진했는데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이 이와 비슷하다. 장성군에 노란색을 입히는 주체는 바로 주민들이다. 사회단체, 유관



기관, 기업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됐다.
거버넌스의 형태로 옐로우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각 읍면마다 대표자를 중심으로 옐로우시티 추진협의체가 구성돼 잘 운영되고 있다. 머지않아 주민들의 손으로 만든 노란 꽃동산이 장성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다.

Q. 새롭게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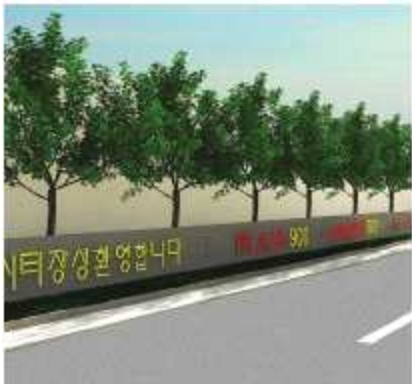
Q. 2016년 옐로우시티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나?

박) 지난 1년 간 색 마케팅 관련 사업들을 하면서 ‘노란색’을 소재로 장성을 브랜드화하려는 우리 군의 시도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많이 접했고,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도가 꽃을 통해 눈으로 보는 작업이 주를 이뤘다면, 2016년에는 각종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

박) 옐로우 감성디자인단 운영과 옐로우 식물은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옐로우 감성디자인단’은 색채, 도시, 디자인 등 분야의 전문가와 경관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군민을 자문위원으로 모셔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시 참여토록 해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군이 구상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옐로우 식물은행’ 운영은 옐로우시티 조성에 필요한 꽃과 나무를 효율적으로 생산 관



제2회 빈센트의 봄 축제(장성역 광장)



옐로우 인사이드(장성읍 관문)



옐로우 프라자(장성역 광장)



옐로우 에비뉴(장성읍 중앙로)

리하고 거버넌스 협의체에 보급하기 위해 관련 실과가 수급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Q. 최근 옐로우시티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던데?

박) 옐로우시티 종합계획은 장성읍을 옐로우시티라는 주제에 맞게 고려시멘트 입구부터 장성역 광장, 중앙로 일대를 옐로우 인사이드, 옐로우 프라자(광장), 옐로우 에비뉴(거리)로 재디자인하는 구상이다. 옐로우 프라자는 장성역 광장을 중심으로 반고흐 카페, 꽃시장 등을 조성해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성역~경찰서~읍사무소~쌍지공원에 이르는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구상이 옐로우 에비뉴이다. 옐로우 인사이드는 고려시멘트와 장성역 진입로에 대한 계획으로 고려시멘트 벽체를 새롭게 단장하고, 시멘트 저장소는 캐나다 벤쿠버의 사일로에서 착안해 하나의 조형물로 재탄생 시킨다는 내용이다.

Q. 4월 중순 장성역 광장에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됐던데?

박)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빈센트의 봄’ 봄꽃 축제다. ‘옐로우시티, 봄의 왈츠’라는 주제로 예술과 봄꽃이 만나 행복한 순간들을 표현해 봤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 공간은 지난해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 정원이 만들어져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꽃 정원 이외에도 야생화 전시, 사진 전시, 문화행사 등이 펼쳐졌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빈센트의 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Q.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박) 민선 6기 장성군이 추진하는 옐로우시티라는 브랜드는 장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옐로우시티 조성은 5만 군민과 7백 명 공무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KTX 장성역 경유 촉구’군민들이 나섰다

호남선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1년이 지났다. 장성역을 정차하는 KTX가 없어지면서 역 주변 상가들은 침체됐고, 군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두석 군수는 수시로 관련 부처를 방문하며 KTX 장성역 정차를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 군민들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장성역에 다시 고속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한 군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유두석 군수는 'KTX 장성역 정차 1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한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했다. 이들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수서발 고속열차 운행 노선의 일부를 장성역까지 연장해달라는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건의서를 전달했다.

'KTX 장성역 정차 1만 명 서명운동'은 지난해 KTX 장성역 정차가 중단됨에 따라 철도이용 불편과 지역상권 침체 등의 문제가 야기되자 장성군 주요 사회단체인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체육회, 모범운전자회가 주축이 되어 장성역에 KTX가 다시 정차할 수 있

도록 추진해온 범군민 서명운동이다. 이 서명에는 당초 목표인원인 1만 명을 넘어 총 12,315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역민들이 장성역 KTX 정차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유두석 군수는 오는 8월 수서발 고속철 개통 시 현재 익산까지만 운행되는 KTX 열차 18편 중 최소 6회 이상의 노선이 장성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지난달에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의'에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에게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 KTX 호남노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광주광역시와의 협력을 도모했다.



유두석 군수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KTX장성역 정차를 건의하고 있다.

시원하게 뱅뱅~ 장성 사통팔달 도시계획도로 개설



좁고 답답했던 장성의 주요 진출입로와 시가지 도로가 4차선으로 대폭 확장된다. 도로확장이 완료되면 장성읍 외곽도로가 모두 4차선으로 연결돼 시가지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교통소통 원활, 전통시장 및 상가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올해 예산 69억 원을 투입해 장성읍 시가지 주요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 사업대상지는 장성의 진출입로가 되는 고려시멘트 앞 도로, 장성역~청운고가다리를 잇는 역전로, 영천주공아파트~황룡시장간 도로.

현재 고려시멘트 앞 도로는 장성군의 주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늘어나는 자동차 통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애플탑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장성역까지는 4차선 도로인 반면, 장성역부터 청운고가에 이르는 구간이 2차로로 좁아져 주민들과 차량 통행이 불편했다.

따라서 군은 고려시멘트 앞 도로와 장성역~청운고가간 도로를 대폭 손질해 4차선으로 확장한다.

도로 확장이 완공되면 답답했던 장성의 관문이 시원하게 바뀌어 이미지가 개선되고, 장성읍 외곽도로가 모두 4차선으로 연결돼 원활한 차량소통이 예상된다. 더불어 지역 상가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상가 활성화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천주공아파트와 황룡시장간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보들 지역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지역 내 장애인들의 열망이 담긴 복지시설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최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물론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장성장애인종합복지관 근무자들과 함께한 유두석 군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군비 20억 원 등 총 51억 여 원을 투입해 장성을 기산리 일원에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지상2층, 연면적 1,504m² 규모로 지어졌다.

군은 복지관 개소에 앞서 지난 2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복지관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 단위 공개 채용 방식으로 해당 분야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14명의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

5월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

를 확립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복지관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지적~~자~~ 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보호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장기 발달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돕는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 심리 재활, 문화여가 및 스포츠 사업을 활성화 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문의 : 장애인종합복지관 (☎ 061)393-6336)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 협약식(왼쪽부터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경환 국토부 1차관, 황종철 LH부사장)

어르신들 살기 좋다 전해라 - ①

150세대 규모 공공실버주택 건립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현대식 실버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대규모 주거단지에 연이어 성공하며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당초 100세대 규모로 결정된 사업을 150세대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소개한다.

광주광역시전남에서 유일하게 공공실버주택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장성군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과 국토교통부 간 공동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공공실버주택의 건설과 운영을 주관하고, 국토교통부는 제도·행정적 지원과 함께 건설비 165억 원과 초기 5년간 연 2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군은 장성읍 영천리 보건소 일원에 150세대 규모의 주거와 의료·복지서비스가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되는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100세대 규모로 결정된 사업이 150세대로 늘어난 데는 유두석 군수의 독심 있는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 사업 확정 이후 유 군수는 사업 주관 부처를 방문해 우리 군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 확대가 불가피함을 피력해 왔다. 입주자격도 완화돼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일반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공공실버주택이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택사업으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주거공간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장성군은 공공실버주택 1~2층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실과 헬스케어센터, 취미실, 여가활동실, 부업실 등을 갖춘 실버복지관을 건립하고 상층부에는 쾌적한 주거시설을 마련해 신개념 노인복지주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르신들 살기 좋다 전해라 - ② 2배 늘어난 통 큰 효도권

군이 지난해 2월부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민선 6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노년효도권 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 생활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 월 2매 지급하던 목욕권(1인당 연 70,000원) 예산을 약 2배 증액해 월 3매(1인당 144,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효도권이 목욕권과 가장 다른 점은 목욕업소 뿐만 아니라, 이·미용실에서도 사용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평소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144,000원 상당의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어르신들이 이·미용실에서도 이·미용을 받으면서 생활이 한결 나아졌다는 평가다. 또한 효도권 사용을 위해 지역 내에서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시장/상가 이용 등의 비율이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효도권 」 이렇게 사용하세요!!!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효도권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지급합니다.

• 몇 매를 지급하나요? 효도권은 월3매 (매월 4,000원권/ 연간 36매)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효도권은 장당 4,000원 으로 계산되며,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용권장 예시>

- 목욕업소 : 효도권 1장(4,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상무대, 북이면 목욕탕은 효도권 1장(4,000원)으로 사용하되 3,000원의

- 미용실 컷트 : 효도권 2장(8,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이발소 컷트 : 효도권 3장(12,000원) + 부족분 본인부담

•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효도권은 목욕업소, 미용업소, 이발업소, 장성군 관내 목욕탕 및 미용업소 86개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매수 월2매×3,500원×10월 월3매×4,000원×12월

지원금액(1인 연70,000원 연144,000원 2.06배증액

• 효도권 이용 문의 : 군 주민복지과 (☎ 061)390-7316)

『목욕권』 과 『효도권』 의 차이는!!!



행복택시, 면소재지까지 딱 100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까지 한참을 걸어둘어 가야하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외출이 한결 수월해졌다.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 ‘100원 행복택시’ 덕분이다. 마을회관에서 면소재지까지 100원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100원 행복택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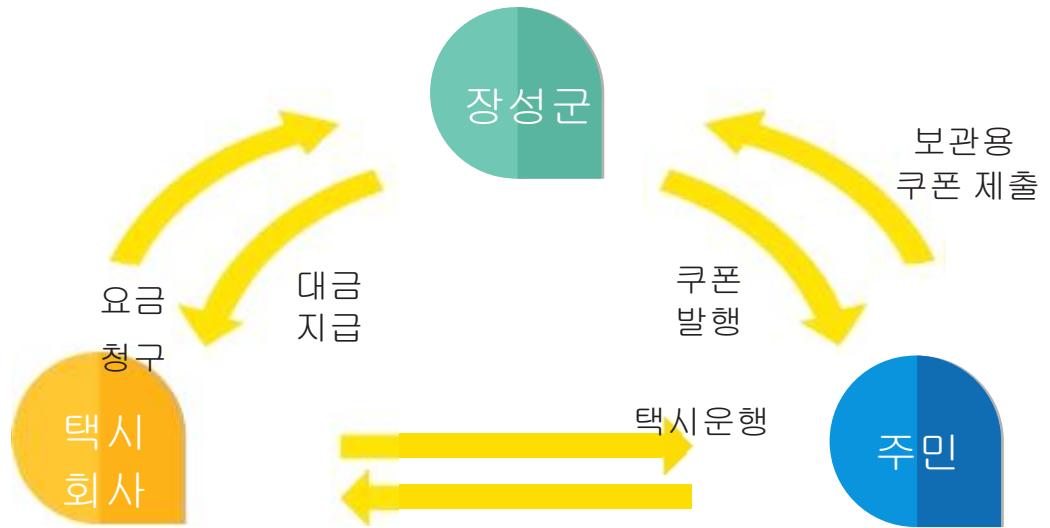
‘100원 행복택시’는 마을과 버스승강장이 일정거리(1km)이상 떨어져 있어 20~30분 이상 걸어 들어가야 하는 마을 주민들이 100원과 택시이용권만 지불하면 별도의 추가부담 없이 마을회관에서부터 면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택시요금의 차액은 군이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택시기사에게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

까운 버스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전수조사하고 5개 면의 18개 마을을 100원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100원 택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택시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마을의 주민 600명에게 1인당 월 4매씩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했다.

◆ 100원 행복택시 운영 시스템



쿠폰 지불

◆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구분 (읍면)	대상마을
진원면	선전1리석동
	학전2리덕촌
	산동2리산동
	학림1리학림
남면	월정2리월계
삼서면	석마2리전도
	석마2리석령
	소룡2리아촌
삼계면	월연리부연수남
	신기리유촌
	내계2리군장
	죽림리숙호
	화산리대동
북하면	월성리두무동
	약수3리가인
	중평2리용산
	대흥리대정
	쌍웅1리쌍목동

◆ 100원 행복택시 관련 문의 : 군 경제교통과 (☎ 061)390-7368)





권역별 농업인프라 완벽 구비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

값비싼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빌려 쓸 수 있어 소규모 농가에 큰 도움을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삼계면에 추가로 문을 열었다. 유두석 군수가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강조하며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서부권 농업인 약 2천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편리함은 물론, 농업 경영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삼계면에 서부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문을 열었다.

동화~~와~~삼서~~와~~삼계~~와~~황룡면 주민들의 환영 속에 들어선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국비 5억을 포함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76㎡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와 임대농기계 60종, 175대를 구비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부권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장성을 성산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내 임대사업소를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유두석 군수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펼치기 위해 권역별로 임대사업소 분소가 설

치되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로 2천여 농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영농시간을 단축하고 농업 경영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은 북부권 농업인들을 위한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올해 안에 장성의 모든 농가가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업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안내

- 임대가능일 : 평일(월요일 ~ 금요일)
- 임대기간 : 1~3일(1회 연장 가능)
- 임대대상 : 주소 또는 경작지가 장성군에 있는 농업인, 농업인안전공제 보험 또는 일반상해보험 가입 농업인
- 임대절차 : 인터넷, 전화, 내방 신청 ㄱ 임대료 금융기관 선 납부 ㄱ 임대계약서 작성 ㄱ 사용방법 교육

ㄱ 사용자 운반 ㄱ 작업 ㄱ 고장 유무, 청소상태 확인 후 반납

•임대기종 및 1일 임대료

기종명	임대료 (원)	보유 대수	기종명	임대료 (원)	보유 대수
합계	60종175대				
SS기운반차	37,000	2	콩파종기(트)	12,000	1
경운기로타리	2,000	2	파이프밴딩성형기	14,000	1
경운기쟁기	1,000	2	상차용2톤분무기	26,000	1
논두렁조성기	13,000	5	과수인공교배기	1,000	5
농용굴삭기	65,000	4	진압기	27,000	1
농용잔가지파쇄기	25,000	4	인력파종기	12,000	10
돌수집기(트)	15,000	2	동력분무기	4,000	3
동력보행경운기	12,000	6	육묘용파종기	5,000	3
땅속수확기(감자)	2,000	2	사각결속기	60,000	1
땅속작물수확기(고구마)	3,000	2	반전집초기	17,000	1
땅속작물수확기(트)	13,000	2	퇴비살포기(SS기용)	17,000	2
보행관리기	9,000	10	잔디기계(승용)	26,000	2
보행제초기	12,000	3	고소작업차	43,000	2
비닐피복기(관)	2,000	3	잔디기계(보행)	8,000	1
스피드스프레이어	77,000	2	비료살포기(트)	2,000	6
승용제초기	32,000	5	땅콩탈피기	13,000	2
심경로터리	10,000	2	휴림피복기(관)	2,000	3
자주형덩쿨파쇄기	21,000	3	유기질살포기(트)	8,000	1
자주형퇴비살포기	29,000	2	농용고압세척기	5,000	5
제초기(프론티어)	44,000	2	자동호스릴	6,000	2
중경제초기(트)	16,000	4	탈망기	3,000	1
콩탈곡기(엔진)	28,000	2	심경플라우쟁기	6,000	1
콩탈곡기(전)	5,000	10	풍구	3,000	1
콩탈곡기(트)	5,000	5	콩정전기(40kg)	1,000	2
퇴비살포기(트)	27,000	2	휴대용자동전동가위	10,000	10
휴림배토기	7,000	3	휴림복토기(못자리성형기)	18,000	2

문의 : 농기계 임대사업소 (☎ 061)390-7191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 학사농장에서 사세요

지난해 11월 학사농장 광주 동천지점에서는 ‘장성군 귀농인협의회 직거래장터’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귀농협의회는 자신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하며 5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이같은 귀농인협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학사농장 내 상시매장 운영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지난 2월 농업인회관에서 유두석 장성군수, 강용 학사농장영농조합법인대표, 조광철 장성군귀농인협의회장과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판매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사농장은 광주 수완지점에 지역 귀농인들이 생산한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사과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장성군귀농인협의회는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납품하기로 하고 '귀농인농산물 구입 우수회원 제도'를 마련, 소비자들을 농장으로 초청해 불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장파티'등을 추진하게 됐다.

이밖에도 학사농장측은 귀농인과 직거래 장터 등도 추진하며 장성군 귀농인들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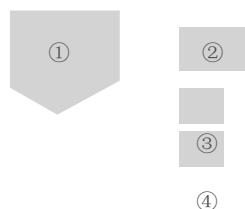
이번 협약으로 장성의 귀농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매처가 마련돼 이들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군귀농인협의회는?

현재 100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별 4개

지부로 나눠 선도농가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기술·유통정보 교류 SNS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교육 ▲자원봉사대 활동 등을 하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 ① 학사농장 광주 수완점
- ② 농산물 판매 업무 협약 체결
- ③, ④ 학사농장에서 판매중인 농산물

권역별 통합 이장회의, “틀을 깨다”

지난 15일 장성군에서 120여 명의 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색적인 화합을 개최했다. **이차회의**를 통해 **채평화공무통조성사업**, **관가개토채원사업** 등을 관할 구로 나누는 장성군의 첫 시·군·면·동별 단위 **이장들에게 설명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크게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역별 통합 이장회의’는 매월 두 차례
읍면별로 개최하는 이장회의를 한데 묶어
최소한 1회 이상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 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번 첫 통합회의는
유두석 군수와 실과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군
정책을 전달하고 이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은 권역별 통합 이장회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방식을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이웃 읍~~읍~~면 이장들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서삼보건지소 신축‘첫 삽’

서삼면에 보건지소가 새로 들어서 주민들의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된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주민복지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될 서삼보건지소가 오는 9월 문을 연다.

군이 지난 19일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삼보건지소 기공식을 가졌다.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서삼보건지소는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진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갖추고 서삼면사무소 앞 부지에 신축된다.

그동안 서삼면 주민들은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보건지소가 건립되면 환자진료와 더불어 보

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방문건강사업, 재활보건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5월 중 준공을 앞둔 장성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이색 휴게공간인 황룡폭포가 조성되고 있다. 기존 황룡체육공원 진입길 주변에 폭포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폭포를 하는 길이 1m, 세로 3.5m, 수로길이 30m 규모의 벽식폭포다. 특히, 황룡강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황룡을 주제로 폭포를 꾸밀 예정이었어서 황룡강로변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옹포양생습지생태보존공단 뒤쪽으로 하수처리장과 어울리는 경관을 연출할 것

이는 지난 2014년 청소년수련관 건립 위치를 필요 이상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던 홍길동체육관 계단 입구로 선정해 탁월한 공간 활용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에 이어 군민들에게 색다른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6년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 선정 삼가1동, 달라질 모습 기대하세요

장성의 관문이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삼가1동이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이곳에 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장성읍 삼가1동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6년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새뜰마을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새뜰마을사업’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재해, 위생, 안전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성읍 단광리

삼가1동은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고,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각종 재난·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다.

따라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개량, 마을안길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위생 지원사업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CCTV 설치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 및
벽면 보안색채정



공동생활회 조성



삼가1동 전경





「백양사 고불매(古佛梅)」

우리나라 4대 매화이자 호남의 5대 매화로 2007년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지정.

사진  김수영



새콤달콤한 체리에 반하다

조행수(진원면 학전덕촌길)

진원면 학전리에는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체리농장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체리는 진한 붉은 색의 알이 크고 굵은 수입산 체리이지만, 그보다 훨씬 맛이 좋은 체리가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농장주인 조행수씨를 만나 그의 체리농사 이야기를 들어봤다.

낮선 과일, 체리를 심다

“이것이 체리나무인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별로 없어요. 체리라는 과일이 농촌지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 물어오면 그냥 앵두라고 대답합니다.”

봄이 되면 하얗게 탐스러운 꽃이 피고 여름 무렵 동글동글한 열매가 맺히는 체리나무. 마을에서 늘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도 조행수씨의 농장에 있는 나무를 잘 모른다고 했다.

“20년 전 광주에서 귀촌을 했어요. 벼농사 대신 논에다 고추를 심었는데 소득은 그다지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농사, 밭농사를 대신할 작물을 찾다가 지역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 체리를 심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조언도 구하면서 5년전 이 땅에 체리를 심었습니다. 아마 장성 관내에서는 가장 처음일 거예요.”

조행수씨는 2012년 진원 학전리 논 3,300m²에 체리묘목 280여 주를 심었다. 처음 2년간은 나무 만들기에 집중했다. 그리고 3년이 되던 해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다. 첫 수확한 체

리는 수입산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매력 있는 작목

조행수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수확한 체리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다. 주변에 다른 재배농가가 없고, 생산량도 많지 않아 장성 인근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같은 판매망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 값을 받기도 힘든 시장상황 탓이었다. 자녀들의 도움으로 어느새 입소문이나 전국에 고정고객이 많이 확보되어 그의 체리는 대부분 직거래로 판매된다.

“맛도, 모양도, 색깔도 수입산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 체리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시장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는 국내에서 재배된 체리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의 바람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체리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고, 현재 지역 내에 체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 비해 재배기술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기술력이



항상돼 체리 수확량도 훨씬 늘어나고 맛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배농가도 늘어날 것이고요. 장성 관내에 작년부터 체리농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정수가 채워지면 작목반이나 법인을 만들어 규모화를 이루고, 탄탄한 판매망도 확보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체리와 함께 5년여를 보낸 조행수씨는 체리 재배가 논농사보다 노동력이 적게 들고 몸이 덜 고된다고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입이 더 나야 상당히 매력적인 과일이라며 작목전환이나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체리라는 작목에도 도전 해보라고 이야기했다.

장성군에서 가장 처음으로 체리라는 작목에 도전해 안정기에 접어든 조행수씨의 농장 한쪽에는 벌통이 있다. 체리 꽃 수정을 위해 키우고 있는 벌들은 개화기 내내 부지런히 움직이며 꽃가루를 옮긴다. 벌이 다녀간 자리마다 열매가 잘 맺혀 올해 체리농사에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본다.





마음을 담다 ‘건강나눔농원’

변동원(북이면 수성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백세로 연장돼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하듯 약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이면 수성리에서 와송, 천문동 등의 약초를 자연의 것 그대로 재배하고 있는 ‘건강나눔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변동원씨를 만났다.

악성림프종 발병, 5년간의 투병

있어요.”

변동원씨는 원래 약초에 관심이 많았다. 혼자서 관련 서적을 읽고 산에 올라다니며 약초를 공부했다. 농사지을 특색 있는 작목을 고민하다가 본격적으로 약초재배를 준비하던 2010년, 그에게는 병이 찾아왔다.

“악성림프종이라고 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후로 5년간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생활을 했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아로니아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었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리자마자 집 앞에 아로니아를 심

약효를 직접 체험한 그는 회복 후 와송, 천문동, 백작약, 돼지감자 등 약용작물 재배를 시작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미래농업대학 특작학과에 등록해 공부하고, 현재는 장성읍 주민센터에서 하는 약초교육에도 매주 참석하고 있다.

건강나눔농원에 소망을 담다

변동원씨는 약초를 재배하는 농장에 소박한 이름을 붙였다. ‘건강나눔농원’이 그것이다. 자신이 기른 약초를 먹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약초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딘가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농약, 제초제 등을 마구 뿌린 약초를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파봤던 사람인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가 농장에서 재배하는 약초들은 노지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다. 친환경 재배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지만 자신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약초를 관리한다.



약초를 장성의 대표작물로

“와송은 1년만 키워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도움이 되지만 천문동 같은 경우는 5~6년을 키워야 약성이 나타난다고 해요.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으니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산이나 강화처럼 약초재배를 규모화해서 성공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약초 재배에 참여해 정직하게 약초를 재배하고 장성의 대표작물로 키워갔으면 합니다.”

곳을 찾는 손님들이 약초 판매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지인들을 통해 정직하게 재배한 믿을 수 있는 약초라는 신뢰가 쌓여 판매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약초를 대량으로 재배하지 못하지만 약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기는 변동원씨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진심이 담겨 있기에 ‘건강나눔농원’의 약초는 그 효능이 몇 배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변동원씨는 민박을 함께 운영하는 덕분에 그



함께하는 공간

女風당당

사회 전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대기업 CEO는 물론 법조계, 교사, 공무원 등 각 직업군에도 여성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우리 군에도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하며 우뚝 선 여성 2인을 만났다.



지

진원면 용산3리 이장 김미진

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김미진 이장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마을에 마련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농사를 돕고,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특유의 손재주로 틈틈이 부업까지 겸하는 그녀의 성실함에서 외국출신, 젊은 여성이라는 약점을 모두 극복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장으로 우뚝 설 날이 그리 멀지 않음이 느껴진다.

“말을 다 알아 들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도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잘 도와주시니 열심히 노력해서 용산3리 이장역할을 잘 해낼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서툴겠지만 배우고 또 배워서 마을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이장이 되고 싶어요.”

역 내에서 최연소 여성 이장이 탄생했다.

다. 진원면 용산3리 김미진씨가 그 주

인공이다. 28세 최연소 이장이 된 그녀는 벌써 결혼 10년차 주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녀가 베트남 출신이라는 점이다.

무엇이든 배우려하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장으로 추천했



“성인 남자도
힘든 농사... 여
못할 일 없다”

엔베리농장 대표 최선화

아 작은 앳된 얼굴의 소녀 같은 최선화

씨는 또래들처럼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런 그녀가 돌연 농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2013년에 후계농업인이 되었다.

그녀가 선택한 작목은 아로니아다. 농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선화 씨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 않고 열심히 다녔다. 농지를 구입하고 묘목을 사고, 농장조성에 필요한 자재를 구하러 전국을 다니는 것도 직접 해나갔다.

그 결과, 동화면에 자신만의 아로니아 농장을 갖게 됐다. 그녀는 젊은 세대답게 농장홍보와 아로니아 판매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와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다. 농장에 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상을 보여주고, 아로니아가 커가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묘목 식재 때부터 지금까지 농약과 화학비

료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제초제 한 번 뿌리면 간단하다고 주변에서는 말하지만 잡초제거는 그녀와 어머니가 직접 한다. 그리고 농장에서 쓰는 퇴비는 재료를 구해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이 퇴비를 만드는 방법도 블로그에 게시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것을 보고 퇴비를 써보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면 나눠주기도 한다. 올해는 삼계면에 새로운 농지를 조성해 농장규모를 늘리고, 블루베리와 같은 작물에도 도전해볼 계획이다.

“처음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성인 남자도 힘든 농사를 어떻게 어린 여자애가 하겠냐, 저러다 말겠지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주시니 좋아요. 어리다고, 여자라고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마음먹기에, 노력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숲에서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오지다 장성 병풍산 편백숲 트레킹 길



병풍산(822m)은 나에게 각별한 곳이다. 어릴 적 추억이 골골마다 서려 있다. 학창시절 단골 소풍장소였다. 보물찾기를 하고, 장기자랑을 했다. 한재골과 두무동 계곡도 애뜻하다.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며 땀별 더위를 잊었다. 산자락에서 놀던 그때 그 시절의 하루해는 유난히 짧았다. 땀감을 구하러 다니던 곳도 병풍산 자락이었다. 군부대의 사격 훈련 때면 들려오는 포성마저도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하여, 병풍산은 심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이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도 않다. 잘 다듬어진 편백숲 길도 발걸음을 유혹한다. 길은

산의 허리춤을 따라 간다. 둘러두런 얘기 나누며 솔방솔방 걸을 주 있는, 참 좋은 길이다.
(전남도청 대변인실)

하늘로 쪽쪽 뺀 편백숲과의 만남

병풍산으로 간다. 남도의 화려한 꽃봄이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던 지난 4월 초였다. 상쾌한 숲의 바람이라도 쐴야 ‘꽃멀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병풍산이 품은 편백숲 트레킹 길은 한재에서 시작된다. 장성과 담양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다. 산정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가 장엄하다. 발아래로 펼쳐지는 한재벌판은 넉넉하다.



그 너머로 광주 첨단단지가 보인다. 남도의 들녘을 적셔주는 영산강도 유유히 흐른다.

병풍산이 품은 숲이 넉넉하다. 연둣빛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싱그러움을 뽐내고 있다. 금세 눈이 시원해진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시름 까지도 빠르게 걷히는 것 같다.

한재에서 큰골로 방향을 잡고 발걸음을 옮긴다. 왼편 산자락으로 편백숲이 넓다. 반듯하게 하늘로 쪽쪽 뻗은 편백이 숲을 이루고 있다. 크고 작은 바윗돌과 어우러진 숲이 편안해 보인다. 편백숲과의 만남을 내 몸이 먼저 반긴다. 눈이 호사를 누린다. 마음 속 갈증까지도 후련하게 풀어준다. 보약 같은 숲이다.

트레킹 길이 편백숲 옆으로 지난다. 길이 제법 넓다. 반듯하던 길이 에스(S)자로 미려하게 구부러진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도 예스럽다. 오랜만에 맛보는 한적함이다.

길가에는 연분홍 진달래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다. 진분홍 빛깔의 철쭉

도 꽃망울을 속속 터뜨리고 있다. 길 옆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보랏빛 현호색과 연푸른 봄까치풀꽃도 정겹다.

살포시 얼굴에 와 닿는 바람결도 달콤하다. 봄바람에 실려 온 숲의 내음을 마음 속 깊이 호흡한다. 숲의 기운을 혼자서 누린다는 생각에 괜스레 가족들한테 미안해진다.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걸으면 더 오지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비 내리는 날 연인과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도 좋겠다. 나뭇잎이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는 가을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겨울날도 멋스럽겠다.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길 가의 쉼터에 앉았다. 산자락에 들어앉은 월성저수지 풍경이 아름답다.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숲길에서 호흡하는 맑은 공기와 물 한 모금으로도 행복을 느낀다.

머릿속 상쾌하고, 호흡 편안해지고

길 양쪽으로 이어지는 편백숲은 여전히 아름답다. 편백숲을 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상쾌해진다. 숲에 넘실대 시원하게 흐르고 있다. 길도 다시 넓어진다. 하
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덕분에. 호흡도 편안 지만 말끔하게 다듬어진 임도와 다르다. 옛길
하다. 걸음을 재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숲 그대로 울퉁불퉁하다. 길이 계곡 옆을 따라 간
길에서 하늘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보약 다. 맑은 물소리가 귓전을 간질이며 동행한다.
같은 편백숲이다. 계곡 숲길을 걷는 묘미가 쏙쏙하다.

어디선가 따다다닥, 따다다닥 울림이 들려 숲길에서 잠시 벗어나 계곡으로 내려갔다. 깊
온다.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 소리다. 쾅 은 계곡이 아닌 데도 물이 맑다. 바위를 타고
의 울음소리와 종달새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 흐르는 계곡물에 한동안 눈을 맞췄더니, 내 몸
온다. 귓전을 울리는 산새들의 울음소리까지 이 물살에 빨려들어 갈 것만 같다.
도 청량하다.

임도를 따라가던 길이 좁아지더니 숲길 내 과 나란히 난 숲길을 따라가니 훑는다. 나무
리막길로 이어진다. 나무로 만들어놓은 계단 가 피워낸 하얀 꽃이 예쁘다. 길옆의 밭에는 남
에서 배려심이 묻어난다. 숲길도 호젓해지고, 새가 심어져 있다. 집도 드문드문 들어서 있다.
오가는 사람도 줄었다. 숲길을 나 혼자서 차 병풍산 편백숲 트레킹 길은 여기서 월성제를
지한 것 같다. 끼고 금계사로 이어진다. 홍길동 우드랜드 편

가파른 길을 내려가니 큰골이다. 계곡의 물이 백숲을 거쳐 병풍산 매봉까지 오를 수 있다. 이

렇게 한 바퀴 도는 거리가 40리에 이른다. 산속 숲길을 따라 편백 군락지와 계곡, 산봉우리를 모두 만난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숲길이다. 온몸으로 활력을 호흡하며 큰 힘 얻을 수 있는 편백 숲길이다.

백양사, 장성호반 드라이브도 근사

병풍산에서 가까운 데에 가볼만한 곳도 많다. 천년고찰 백양사는 계곡과 연못이 어우러지는 신록으로 새봄을 노래하고 있다. 비자나무 숲도 귀하다. 천연기념물(제153호)로 지정돼 있다. 수령 700년 된 이팝나무도 있다.

10년 넘게 주인 없는 양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단전리 신촌마을도 지척이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마을사람이 마음속까지 따뜻하게 해준다. 장성호관광지에 있는 장성호 문화예술공원도 둘러볼만 하다. 장성호반 드라이브도 사철 근사하다.



문암골영농조합법인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흑두부

축령산 자락 금곡영화마을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문암골영농조합법인은 서리태콩으로 흑두부를 만든다. 이곳의 두부가 특별한 이유는 지역에서 생산한 콩을 사용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법인은 복일면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작목반을 만든 데서 시작됐다. 작목반 회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검은콩, 검은깨 등의 농산물을 사들여 판매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애써 지은 농작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단순 판매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을~~ 농촌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문암골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 회원들은 당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검은콩을 이용한 두부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흑두부는 대부분 수입산 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서 착안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믿을 수 있는 서리태콩만을 이용한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에 도전했다. 주변에서 만류도 많았고, 두부를 만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거쳐야 했다.

지수남 대표와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두 번 두부를 만든다. 따로 정해진 시간은 없다. 대부분 이른 새벽 작업을 시작해 오전 중에 두부 만들기를 완성한다. 만들어진 두부는 소포장해 장성하나로마트와 곡성 소재 '마실란'이라는 밥 카페에 납품한다. 법인 공

장이 축령산 입구에 있어 이곳을 다니러 온 관광객들의 발길도 잦다. 두부를 만들 때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막 끓여낸 따뜻한 콩물과 연두부, 콩비지가 덩으로 주어진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꼭 돈을 많이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먼 곳까지 찾아와 주신 소비자들에게 정이 담긴 덩을 챙겨드리고,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먹을거리를 만들면 절로 입소문을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먹어 본 사람이 소개해서 전화했다며 택배를 주문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법인 회원들은 두부 판매로 큰 수익을 바라지 않는다. 수익창출 보다는 바른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농업인이자 가공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로 했다. 아직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두부만들기 체험 등을 추진할 수 없지만 지수남 대표는 앞으로 좋은 곳에 터를 잡아 직판장을 겸한 흑두부 전문음식점과 두부체험장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서리태콩을 장에 내서 파는 것보다 두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곳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태를 재배하겠다는 농가도 점



점 늘고 있구요. 우리 문암골영농조합법인이 잘 운영되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먹을거리가 생겨 축령산 관광도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암골법인과 인근 문암리가 전북 임실치즈마을처럼 장성군을 대표하는 농촌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봄

땅속에 숨어 있던
새싹들이 나오는 계절

겨울잠 자던
동물들도 땅속에서
나와 “안녕”
인사하지요.

나무에선
꽃봉오리가 활짝
꽃을 피우지요.

“와 봄이구나”



아직도 꿈



안자형 (장성읍 매화길)
약력:
<동산문학> 시 등단.
전남문인협회 회원,
장성문인협회 사무국장

부드럽고 살가운 여자와
살아보는 것이 꿈이라는 울 아버지

팔십이 넘으신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신다

하루에도 몇 번씩 논뼤미를
돌러보고 들어오셔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주름 가득한 미소 던지신다

주책이라며 같이 웃어주면 졸으련만
여전히 생콩 같이 토라지신 울 엄마

이 땅에 나와 죽어 밭에서 힘들게 일하는 당신에게
지원하께 마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면 좋아할려나.....'

혼자 중얼거리시며 대문을 나서는
아버지 뒷모습에 울 엄마 눈 흘기신다

아버지의 집

집안일을 대충 끝내고 고향 가는 버스에 올랐다. 언제라도 친정 가는 길은 즐거웠다. 논과 밭, 그 곳에서 자라난 곡식들은 마파람에 물결치고 그래서 고향의 풍경들은 나를 항상 동심의 세계로 몰고 갔다. 그런 고향이 오늘 이토록 마음을 뒤흔치게 비워 낸 추수가 끝난 늦가을이라는 탓만은 아니다.

아침 일찍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내일이면 집을 철거하게 되니 서운타 말고 누나도 한번 와서 마지막으로 집을 보아 두라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온몸을 호되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신 지 불과 두어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에 손을 대다니, 동생이 야속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얼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다. 캄캄 밤이면 나뭇단 위에 얹힌 비닐조각이 바람에 나풀대도 ‘꼭 니 아버지가 잠바 입고 서 있는 모습 같다.’하던 어머니의 외로움을 하룻밤도 달래드리지 못했던 나는 못난 딸이었다. 그런 내가 어찌 어머님을 모시고 살 집을 개축하겠다는 동생을 나무랄 수만 있으랴. 여러 가지 상념에 젖은 채 친정집에 다다랐다.

“어서 오니라 집안이 너무 심란하구나.”

마당에 내어 놓은 살림을 정리하다 말고 어머니가 반기셨다. 쌀쌀한 바람이 어머니의 형클어진 허연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간다. 어머니와 집을 바라본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듯 콧등이 아려

왔다. 대나무 숲에 힘없이 기댄 듯한 집이 이제 가진 것 다 내어주고 마지막 형벌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그렇게 서 있었다. 어쩌면 임종 직전의 아버지 모습인 듯 애처로워 마루기둥을 쓸어본다.

“들이 푸르기는 푸른다....”

폐암 말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버지는 마루에 기대앉아 아버지 땅이 있는 들판을 바라보셨다. 유산으로 받은 몇 마지기의 논에서 대농을 이루기까지 아버지는 남다른 고생을 하셨다. 젊어서는 먼 타국(남양군도)에서, 돌아오셔서 방직공장에 삼십 리나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셨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땅이었다.

아버지는 진지를 드실 때마다 밥을 남기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건 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술의 밥이라도 아끼기 위함인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텃줄에 여섯 번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더욱 부지런히 벌어야겠다는 다짐만을 하셨다. 그렇게 근검절약이 생활화되신 아버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논을 사들이게 되었고 죽으로만 끼니를 때우던 온 식구는 하루 품삯으로 보리쌀 한 되를 받던 그 시절에도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재산을 모으는 데만 힘을 다하지 않으셨다. 퇴직하여 노구를 이끌고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자손이 없는 집에 상을 당하면 손수 꽃상여 사서 염까지 하여 초상 치르는데 앞장섰고, 혼례

식이 있는 집은 종이에 물감 들어 꽃을 만들고 봉황을 그려 초례청을 꾸며준 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 집일은 물론 남의 일까지 한시도 손을 놓고 앉아 쉬는 법이 없으셨다.

“이제 내일은 집이 헐릴 테니 방이랑 다 둘러봐라.”

어머니는 내 방은 저 쪽이 될 거라며 손가락으로 구석진 곳을 가리키며 씩씩한 미소를 지으시곤 큰방 문을 열고 계셨다. 방안엔 아직도 식지 않은 아버지의 온기와 윗목 벽엔 그분의 고생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 팔 남매의 결혼사진이 즐비하게 끼워진 사진틀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딸들을 여우살이할 때마다 이럴 때 쓰려고 모아 둔 돈이니 아깝다 생각 말고 필요한 것 다 살 것을 권하시곤 했다. 막내 딸 결혼식 날 사위 손에 딸 손 쥐어주고 이제 할 일 다했다며 두 손 모아 털고 뒤돌아 선 채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던 우리 아버지. 오로지 하나뿐인 아들을 이태리에 유학 보내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더니 무엇이 그리 급해 돌아온 아들 얼굴 한 번 대한 것으로 황망히 떠나고 마셨는지.

어머니는 또 정지 문을 열고 문지방에 걸려있는 등을 조심스레 내리셨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등은 십 수 년을 끌어안고 살아온 부모형제의 애환을 다 꺼안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등에 끼인 먼지를 닦았다. 내 방에 걸어두고 긴 겨울밤 호롱불 밝혀두면 깜박이는 불빛 타고 오순도순 고향 이야기가 들릴 것만 같기 때문이다.

일곱 자매의 꿈의 산실이었던 작은방 문을 열어 본다.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우리 정지 방에만 머무르던 곳, 조그마한 방이지만 넓은 창을 통해 별을 보며 수많은 꿈을 가꾸어 온 우리들이었다. 이제 빈둥지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들은 뭐라 말을 할는지!

“누나! 아버지 집을 없앤다는 건 나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인데 들여놓을 짐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용단을 내렸어요. 어머니도 생활하시기에 편할 것 같고.”

“그래 잘했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 있겠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설계도면을 펼쳐 보인 동생의 얼굴에서 한 세대가 가고 오는 과정을 실감하며 해질녘 내 집으로 향했다. 옛 우리 집 이야기가 가득 담긴 소중한 등을 감싸 안고서.



윤영자

약력:

전남 장성군 남면 출생 / <수필과 비평> 등단 (1997)

한국 여성문학상 수상 (1996) / 광주문협/전남문협/ 장성문협/한국문협 회원





고향의 봄... 웃음이 예쁜 꼬마의 천진함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풍경입니다. 꽃샘추위도 스르르 자취를 감추어 버린 꽃피는 춘삼월! 지난 일요일 엄마랑 아빠랑 즐거운 봄나들이를 나온 듯 한 단란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사진을 찍는 내내 스무 해도 훨씬 지나버린 큰 딸아이와의 오랜 추억들이 봄날 아지랑이처럼 떠오르더군요. 냉이 한 뿌리를 캐고 저렇게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말이죠!

시골의 봄



글썩사진 이재현

여긴 감나무 밭입니다. 10월이면 주홍빛 풍성한으로 입을 즐겁게 해주던 단감나무군요. 여기에도 농부들의 땀방울이 보입니다. 품질 좋은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가을 수확 후 자라난 많은 가지들을 잘라내는 전정작업이 한창입니다. 농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는 단정하게 이발을 한 듯 시원해 보이네요.



이번에 딸기농부의 밭길이 달은 곳은 마늘밭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하신 할머니의 바쁜 호미질에 여지없이 뽑혀지는 잡초들! 풀 한포기 하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군요.



농촌의 들녘 여기저기서 바빠진 트랙터의 경쾌한 몸놀림에 시선고정!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순식간에 그 단단하던 밭을 곱게 갈아버립니다. 좌르르~ 부서지는 흙의 냄새가 싱그럽습니다.



하루 온종일 농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이번엔 기계로 감자파종을 하는 풍경을 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아짐들이 쪼그리고 앉아 씨감자를 이랑에 묻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기계로

이랑을 만들고, 감자심고, 비닐씌우기까지 한 번에 끝내버리는군요.



역시 따스한 햇살이 반가운 봄날에 워니 워니 해도 쑥 캐는 아낙들이죠! 밭둑에서 차분히 쑥을 채취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쑥 향이 은은하듯 쑥 캐는 아낙들의 표정에도 흐뭇함이 느껴집니다.

엄마랑 봄나들이를 나온 귀여운 꼬마입니다. 엄마와 함께 쑥과 냉이를 캐고 있나봅니다. 냉이 한 뿌리를 들고 좋아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귀엽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마도 재미난 봄나물 뜯었던 일로 집 안이 화사한 이야기꽃을 피우겠죠.

농촌 구석구석에 봄의 향연들이 가슴 벅찬 풍경을 만들어내며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요월정, 물빛에 젖어 드는 달을 맞이하는 곳



임춘임

(문화관광해설사)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6학년까지의 12번 소풍 중 10번은 갯을 법한 곳, 그 곳이 바로 '요월정'이다. 요월정은 우리들이 숨바꼭질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면서 가슴속에 꿈을 키워왔던 곳이다.

문불여장성, 선비의 고장 장성 이미지에 아주 걸맞은 요월정은 물빛에 젖어드는 달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약 500년 전 공조좌랑을 지낸 김경우가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경관이 수려한 이곳에 지은 정자이며, 하서 김인후와 고봉 기대승 등 그 시대 명현들의 시와 현판이 새겨져 있다.

요월정은 숲에 오르기 전부터 이야깃거리가 많다. 마을 이름부터 이곳이 명당 중에 명당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마을 이름은 황룡면 황룡리 원황룡이다. 황룡(黃龍)이 세 번이나 겹쳐서인지 이 마을에서는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를 배출해 내기도 했다.

마을을 바라보면 곳곳에 깊은 유래가 배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정자로 오르는 동산에는 100여 년 된 배롱나무 6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고풍스럽게 허리가 흰 소나무가 숲을 이루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요월정과 함께 하는 숲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먼저 요월정 정자에는 현판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1811년 김경우의 9세손인 김경찬이 중건하면서 만들어진 현판이고, 다른 하나는 1925년 후손 김계두가 고쳐 지으면서 걸었다. 현판을 뒤로 하고 정자 마루에 걸터앉으면 탁 트인 황룡 돌과 길게 굽이쳐 흐르는 황룡강과 옥녀봉이 보인다.

또한 김경찬이 이곳의 경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조선 제일의 황룡리’라고 현판에 새겼는데, 이를 나랏님이 알고 ‘네가 있는 황룡이 조선의 제일이면 한양은 어떠하냐?’라고 묻는 말에 ‘한양은 천하에 제일입니다.’라고 답하여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지금은 강줄기가 바뀌어 소가 별로 깊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자 아래로 황룡강 물이 흘렀다. 명주실타래를 3개나 풀어 넣을 만큼 깊은 강이었으며, 물이 거세게 몰아치는 상당히 큰 소를 이루고 있었다.

그 깊은 강에는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두 마리 용이 하늘로 승

천하기 위해 100일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 새벽, 두 마리 용은 소나무에 올라 하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동네 처녀가 물을 길기 위해 왔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너무 놀란 처녀는 넘어지다가 용의 꼬리를 밟게 되었다. 한 마리는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고 꼬리를 밟힌 용은 승천하지 못하여 지금도 낙화암 밑의 소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용이 떨어졌다는 바위가 용바위이다.

낙화암은 임진왜란 때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고 아녀자들만 남아 있는데 왜적이 마을까지 쳐들어와 아녀자들을 겁탈하려 하자, 정조를 지키려는 이 마을 여인들이 요월정 앞에 있는 바위에 올라 모두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는데, 그 모습이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여 ‘낙화암’이라 불리게 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한 아담한 정자 주변의 배롱나무가 7월 중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100일 동안 불 밝히듯 비추이면, 저 아래 아직도 살아 숨 쉬는 승천하지 못한 용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



취미활동? 어렵지 않아요

다이어트, 금연, 운동 등등...새해에 계획하셨던 일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들 키우느라 새로 결심하셨던 일들을 깜빡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장성군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육, 독서동아리 등 등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바쁘지만 잠시 짬을 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시설사업소

- 신청기간 : 연중
- 대 상 : 장성군민

문화예술교실명	운영기간	장소	참여방법
문화예술교실-색소폰	- 2016. 1. 18. ~ 12. 23. - 매주 월, 목요일 - 19:00~20:30	문화예술회관	- 전화 및 현장 방문 접수 - 무료강좌
문화예술교실-난타	- 2016. 1. 18. ~ 12. 23. - 매주 화, 수, 금요일 - 19:00~20:00		

문화예술교실-난타

□ 문 의 처 : 문화시설사업소 운영담당 (☎ 061)390-8475)



생활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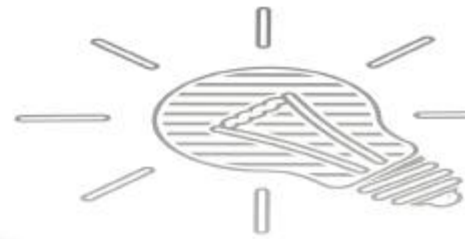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장소 참여방법
에어로빅	- 2016. 1. 11. ~ 12.23. -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 19:00~20:30	홍길동체육관 에어로빅장	
	- 2016. 1. 11. ~ 12. 23. - 매주 화, 수, 목요일 - 19:00~21:00		
	- 2016. 1. 11. ~ 12. 23. - 매주 월, 수, 목, 금요일 - 19:00~20:30 골프	홍길동체육관 실내골프장	
	- 2016. 1. 11. ~ 12. 23. - 매주 화요일 17:00~19:00		
	- 2016. 1. 11. ~ 12. 23. - 매월 7일, 금요일 - 18:00~20:00	홍길동체육관 요가장	- 연습사용료 납부 후 강습 ※ 연습사용료 (1회 2시간 이용)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061)390-8480
- 2016. 1. 11. ~ 12. 23.
- 19:00~21:00

· 일권 : 1,000원
· 월권 : 20,000원
· 무인발매기에서 발권

뉴스인장성

배움터



신청기간 : 연중	활동 내용	비 고
대 상 : 장성군민	어린이책 읽기, 부모역할 등	중앙,삼계,북이
	고전문학소설 읽기	중앙도서관
독서동아리	영화감상 나누기, 원전읽기	중앙도서관
	공동체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분	중앙,삼계,북이
□ 회원혜택 : 강사 지원, 모임장소 제공, 대출권수 상향, 희망도서 우선 구입 □ 신청방법 : 장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www.jsah.net), 전화, 방문 □ 문 의 처 : 장성군립도서관 도서관 담당 (22-864)390-8492)		

원전 영화감상

마을·직장·기관단체

※ 독서동아리 운영 현황	동아리명	회원수			
	책 읽는 농부		월요일 19:30	매월 첫째주 9 남면 시목마을	
				매월 둘째주	
2	서담(書談)	12	월요일 20:00	삼서면 드림빌	
				매월 넷째주	
3	서로다독	10	목요일 19:00	농업기술센터	직장
				동아리	
4	책향기		매월 첫,셋째주 목요일 10:00 11		삼계도
	옐로우 독서당			매월 셋째주	
5		10	목요일 19:00		중앙도서관
	고전문학			매월 넷째주	동아리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 접수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접수(어린이 대상 강좌는 보호자 방문)
 □ 접수장소 :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1층 안내데스크(수강료 3개월분 선납)
 □ 문 의 처 :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 061)393-3336)

활력충전으로 에너지 up 건강 & 댄스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수강료(월)	강사
장성돌고래		15:30~15:35	5,000	김수일(전문강사)
벨리댄스 & 댄스	월,수,금	생활 요가 10:00~11:00	15,000	이선미(전문강사)
댄스				김기숙(전문강사)

내 삶에 활력이 되는 취미교양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수강료(월)	강사
예쁜글씨 (자격증반모집)	화,목	09:30~11:30	15,000	송명미(전문강사)
	목	18:30~20:00	10,000	박윤경(전문강사)
	화	09:30~11:30		
	화	18:30~20:00		
	화	18:30~20:00		
파스텔화	월		10,000	조미숙(전문강사)
	수			

현대인의 건강과 힐링에 도움되는 약초건강이야기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수강료(월)	강사
토종약초	사,금	14:00~16:00	10,000	김성희(전문강사)

생각이 쑥쑥 자라는 창의 로봇만들기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수강료(월)	강사
로봇과학	목	14:00~18:00	10,000	김유성(전문강사)

무료교실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수강료(월)	강사
기공체조	화,금	16:00~15:30	무료	정석동(전문강사)
힐링스트레칭(요가)	화,목	18:40~19:40	무료	한명숙 동아리로운영되므로

추후 폐강될수있음

5월 16일은 「장성토마토데이」 슈퍼푸드 장성토마토로 건강과 장수의 기운을 전하세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라는 유럽 속담이 있다. 토마토는 의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토마토가 장성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장성토마토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될 「장성토마토데이」를 미리 만나본다.

타임(time, 미국 시사잡지)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중 하나로 선정된 토마토는 항산화물질인 라이코펜, 구연산, 비타민 등 각종 기능성 물질이 풍부해 파워푸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토마토 100g의 열량이 16kcal로 같은 양의 밥(148kcal)보다 9배나 적고 칼륨, 칼슘, 유기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과식을 억제하고 소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장성에서의 토마토 재배는 1970년대 남면에서 시작되어 40년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그동안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수출하고 있는 우리 군 대표적인 특화채소로 자리잡았다. 현재는 남면, 진원면, 황룡면 일대를 중심으로 142농가가 60ha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어 연중 언제나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는 열매가 2~3cm의 구형인 ‘방울토마토’, 생긴 모양이 대추

와 비슷하다 해서 이름 지어진 ‘대추토마토’, 일명 짹짹이라고 하는 ‘찰토마토’가 있다. 장성토마토는 종류를 불문하고 당도가 높고, 달콤함과 새콤함이 조화를 잘 이뤄 남녀노소에게 각광받고 있다.

5월 16일 열리는 「장성토마토데이」는 생산농가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장성토마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군이 추진하는 농산물 데이마케팅 ‘Lucky 7 days’ 중 두 번째 행사다. 이날 행사는 남면농협을 비롯하여 전남토마토산학협력단, 우리음식연구회와 토마토생산자단체 4개 단체와 체험마을이 참여하게 되며 토마토 상품 전시, 품종전시, 토마토요리 전시 및 시식회, 아그로테드 강연 그리고 분향초등학교 학생들의 토마토송 합창, 토마토체험학습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장성토마토데이 행사 개요

- 일 시 : 2016. 5. 16. (월) 15:00~
- 장 소 : 남면 게이트볼장 (장성군 남면 분향리 359-21)
- 행사내용 : 토마토 상품 전시, 품종전시, 토마토 요리 전시, 시식회,
토마토송 합창, 토마토체험학습, 칼라토마토 소망트리 전시 등
- 구입문의(생산자 단체)
 - 남록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임열, 010-2619-9900
 - 장성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회식, 010-3636-5021
 - 장성과채류생산단지 대표자 박태우, 017-607-5508
 - 분향찰토마토작목반 대표 천명우, 010-3648-0685
 - 남면비나리마을 위원장 이창희, 010-3243-3376

※ 참고자료 : RDA Interrobang (5호) 토마토의 건강한 매력(2012)
365일 건강하게 살려면 채소&과일을 즐겨라(농민신문사, 2010)
별자리보다 더 낭만적인 열두 과일 이야기(2007)



귀농 귀촌, 장성에서 도와드려요

귀농 ~~귀~~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할 소식을 전합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장성군이 농업교육 이외에도 전들이 비용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인생 2막, 장성에서 시작해보세요.



귀농·귀촌 후 마을분들과 친해질 수 있어요

높 마을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집들이 비용 지원합니다

○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 지원자격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전입 3개월 이상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가구당 30만 원 (집들이 비용)

높 귀농·귀촌한 마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 아름다운마을가꾸기지원사업

- 지원자격 : 귀농·귀촌인 3가구 이상인 마을

- 사업량 : 2천원
- 사업비 : 가구당 1천원
- 사업내용 : 마을환경가꾸기 (벽화 및 화분 등)



귀농 후 안정적으로 농사지으세요

높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 연령제한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 전입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조건
 - 농업창업 :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억 원 한도 (2회 신청 가능)
 - 주택관련 :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5천만 원 한도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 및 임야구입, 농기계, 농업용 1톤 화물자동차 구입, 농업기반 시설, 축사신축 등
 - 농업비즈니스 : 농지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련시설부지 구입, 농가레스토랑 등
 - 주택관련 : 단독주택 연면적 150㎡(45평) 이하 주택구입 및 신축 (대지 포함)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구입 가능

높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지원자격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전입 5년 이내 신청 가능
- 사 업 량 : 12세대
- 사 업 비 : 2천만 원(보조 1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
-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지원 (하우스, 저온창고, 유통시설 등)

높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 지원자격 : 안정적인 정착을 이룬 귀농인으로 65세 이하, 전입 7년 이내 신청 가능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4천만 원(보조 2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 지원내용 : 가공·유통·체험 등의 6차 산업 관련 시설 지원



농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사업

○ 지원자격 : 영농을 희망하는 타산업 미종사로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선도농가 현장실습 (귀농연수생 1인 80만 원, 선도농가 40만 원/월)



귀농 후 쾌적한 주거공간 만드세요

농 농가주택수리비지원

○ 지원자격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65세 이하, 전입 3년 이내 신청 가능

○ 사업량 : 10세대

※ 문의 :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 (☎ 061)390-8431~2)

○ 지원내용 : 농가당 5백만 원 한도 보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수리비 지원



군이 2015년 지방자치단체 정부 3.0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16일 군청 로비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장성군은 2014년 농정조직 일원화를 통해 농업관련 지원사업 신청창구를 통합함으로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협업'에 대한 주민체감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군은 주민과 함께 정책개발을 위한 정부 3.0실현을 위해 주민,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며 군이 추진 중인 옐로우시티 조성 및 옐로우푸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 정부 3.0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장성군이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실과, 읍면장을 대상으로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업무 추진에 나섰다.

따라서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규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급부를 한 장의 신청서만으로 통합처리가 가능해졌다. 서비스의 종류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다자녀 전기료/도시가스 요금 감액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유축기 무료 대여 등 총 7종이다.



넷째아 양육비 1천만원 지원의 첫 번째 주인공



군이 올해부터 넷째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비 지원을 1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한 가운데, 지원 대상 첫 주인공이 탄생했다.

지난 1월 넷째 딸을 출산한 삼계면의 장모 (33세, 여)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에 유두석 군수와 보건소 관계자들은 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육아용품과 양육지원금 증서를 전달하고 아기 출생을 축하했다.

보건소 장애인전용 옐로우 주차장



군은 최근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옐로우 주차장 2면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 현관 앞 화단 72㎡를 없애 주차구역을 만들고 비가림 지붕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특히 주차구역 바닥을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에 맞는 노란색으로 도색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콜택시’ 본격 운

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은 휠체어 탑승장비가 설치된 카니발 자동차로 1 ~~₩~~ 2급 장애인,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로 문의 또는 예약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비의 30% 수준이다.



으그췌췌 수회교육

군 보건소가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응급의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순회교육은 응급처치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요령 등 누구나 손쉽게 익힐 수 있는 요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문의 : 보건소 건강생활담당, ☎ 061) 390-8362)

특히 어르신들이 응급상황을 가정하고 마네킨을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올해 5억 9천만 원 투입해 117ha 조림사업



장성군이 치유의 숲으로 유명한 장성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사업비 5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숲속의 장성’ 만들기에 나선다.

따라서 리기다소나무림, 불량활엽수림 등을 대상으로 ▲경제림조성 80ha ▲큰나무공익조림 13ha ▲산림재해복구조림 19ha 등 총 117ha에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이중 80%에 편백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해 지역의 대표 산림자원인 편백숲을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제 시모의 해사 - 화료가변에 자서의 미래를

군이 지난 3월 ‘장성군의 미래를 심는 날’이라는 주제로 황룡강변에서 군민, 군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여해 황금색 수종의 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했다.

특히 황룡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인 제일교와 미르랜드 제방사이에 황금회화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해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를 더했다. 이는 그동안 산에서 식목일 행사를 진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군이 역점사업을 삼고 있는 황룡강 프로젝트의 핵심가치를 살려 황룡강을 더욱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장성사랑카드’ 적립금 장학금으로



군이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금 2천5백여만 원 중 1천6백2십여만 원을 지역 우수인재를 후원하는 장학금으로 출연했다.

이 적립금은 지난 2006년 장성군과 농협 중앙회장성군지부가 협약을 맺어 매년 법인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등을 사용하는 금액의 0.3~1%를 적립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적립액이 2억 6백만 원에 이른다.

지역 내 기업 인재육성을 위한 자해

(주)휴파크 정덕진 대표, (주)대명엘리베이터 최광일 대표이사가 지난 3월 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1백만 원과 9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주)휴파크 정덕진 대표는 장성읍 출신으로 캠핑 트레일러 제작 전문업체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4년 2월부터는 홍길동테마파크 내에서 오토캠핑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화면 출신인 (주)대명엘리베이터 최광일 대표이사는 1994년 법인을 설립해 현재 동화면에서 사업체를 이끌고 있다.



나노산단 입주기업 지원센터



군은 나노산단 레이저센터에 산단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센터인 ‘입주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나노산단 입주기업들의 구인·구직 및 일자리 정보 제공,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안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의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장성사업소와 함께 운영된다.

장성군 건축허가 대폭 증

장성군 건축인허가 건수



장성군 건축 인허가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건축인허가 통계와 2016년 예측 인허가 공표내용에 따르면 군의 건축 인허가 건 수는 작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는 전년대비 10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황룡행복마을(100세대)와 나노산업단지 기업(200개) 그리고 북이 전원마을(30세대), 수양 전원마을(23세대)입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장성군의회, 의회기 · 의원배지 ‘한글화’



〈변경 전〉



〈변경 후〉

장성군의회는 의회기·의원배지 등 의회상징물에 대해 한글화를 추진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김옥·김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의회기를 비롯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

회기 등의 문양 내 한자표기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했다.

군의회가 의회 상징물 한글화를 추진한 배경 면분와 복회임장, 회익식 등 김주 할자 마크가 붙어 있는 모든 의회 상징물이다. 과 함께하는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의장을 “한글은 우리 문화사상 으뜸관 는 자랑거리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한 글 사용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며, 한글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정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김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장성군의 노인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환자 가족들에게도 경제활동 및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옥 의원은 “단기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해 지역 내 단기보호 전 글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서서비스 시설이 부재한 상황에 있어 이 조례를 통해 소외된 계층 및 노인, 환자, 가족 등에게 조

제 279 회 장성군의의회 임시회

장성군의의회는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27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장성군의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하고, 「장성군의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동의안」,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성군 군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예산 대비 18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총 규모 3,550억 원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복지 및 농업농촌 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재해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결과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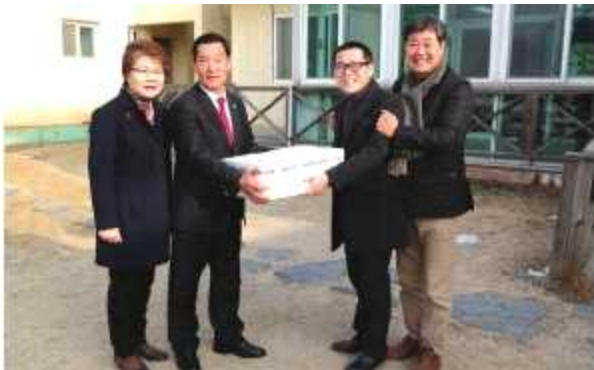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식 위원장은“이번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구제역 방역 초소 방문

김재완 의장은 구제역 방역 초소를 방문해 소독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구제역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설 명절을 맞아 노인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나무심기, 미래를 향한 약속 제71회 식목일 행사

지난 3월 25일 황룡강 주변 일대에서 장성군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가졌다.



KTX 장성역 정차 촉구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4월 2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직접 방문해 전~~원~~현직 의원의 서명이 담긴 장성역 KTX 정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장성군의회는 전~~원~~현직 의원이 모두 참석한 '의회 개원 25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장성역 KTX 정차 건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장성읍]

북이면 오익교 씨, 읍사무소 주차장 무료 도색작업 추진



북이면 오익교 씨가 지난 3월 장성읍사무소를 찾아 주차장 도색작업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는 오익교 씨가 김봉수 장성읍장이 북이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연을 맺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졌다. 휴일을 이용해 읍사무소를 찾은 오 씨는 흐릿해진 주차라인을 깔끔하게 재단장하며 훈훈한 정을 전달했다.

‘인산 오윤석’ 씨, ‘백양사 고불매’ 작품 기증

기로미술협회장성지회장 ‘인산 오윤석’ 씨가 지난 3월 직접 그린 ‘장성 백양사 고불매’ 작품을 읍사무소에 기증했다.

오윤석 씨는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지정된 백양사 고불매의 향기와 그 아름다운 자태를 군민과 함께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기증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성미래발전청년위원회, 집수리 봉사활동



장성미래발전청년위원회(회장 이오채) 회원 20여 명은 지난 2월 장성읍 충무동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가 도배, 장판, 싱크대를 교체하고 집 안팎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성미래발전청년위원회는 이밖에도 장성 곳곳에서 집수리봉사활동을 펼치며 활발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장성군지방행정동우회, 요양병원 위문 공연 실시



장성군지방행정동우회(회장 김재선)가 지난 2월 북일면 소재 장성성모요양병원을 찾아 재능나눔 위문공연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판소리, 기타, 하모니카, 색소폰 등을 연주하며 50여 명의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장성읍이동장협의회, 사랑의 백미 전달

지난 2월 장성읍이동장협의회(회장 장용균)가 저소득가정에 230만 원 상당의 백미 54포(20kg)를 전달했다.

이는 이동장들이 최일선에서 일하면서 발굴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달 지원받는 활동수당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이들은 6년째 이와 같은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봉사단체 '마음사'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봉사활동단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대표 황선임) 회원 9명이 지난 2월 청운동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단체는 광주지역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외 봉사단체로, 지역을 불문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며 다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진원면]

재광진원향우회, 불태산에서 산불방지 기원



지난 3월 재광진원향우회 회원과 지역 주민 30여 명이 불태산에 올라 시산제를 올렸다. 이들은 제를 올리며 불태산 산불 방지와 등산객 ~~주~~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했다.

농업경영인회, 산불조심 캠페인 펼쳐

진원면 농업경영인회(회장 변영연)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변영연 회장과 회원 10여 명은 사비를 모아 '산불조심' 현수막을 제작해 산과 연접된 위험지역에 게첨했다.

이는 지난해 봄, 불태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낳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인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추진됐다.



[남면]

(주)참든건강과학,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



지난 3월 (주)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 임직원 10여 명이 평산리 독거노인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온맘다해'라는 사내동아리 회원들은 이날 집 주위를 정돈하고, 가재도구들은 씻어내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주)참든건강과학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제21회 양정장학회 장학금 전달



지난 3월 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양진 양정장학회 이사장과 대학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양정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장학회 측은 남면 4명, 진원면 3명을 선정해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정장학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4명에게 8천 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동화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구산당산제와 동계숫대제

지난 정월대보름 동화면에서는 ‘구산당산제’와 ‘동계숫대제’가 열렸다. 오랜 세월 구림2리 구산마을 주민들은 당산제를 준비하며 주민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굿치기를 통해 액운을 쫓으며 주민들의 평안과 생업번창을 기원해왔다.

더불어 동호2리 동계마을의 숫대제는 마을 구성초기부터 수호신 역할을 해온 짐대에서 음력 초하룻날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던 풍습으로 옛 문화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안강병원 의료진 의료봉사활동 펼쳐



만성통증 박사인 안강 원장을 비롯한 안강병원 의료진 6명이 지난 1월 동화면사무소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2016년 동화면사무소 시책으로 추진 중인 안강병원 무료 의료봉사활동은 허리, 어깨 등 만성통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화번영회, 사랑의 백미 전달

동화번영회(회장 이정연)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관내 경로당 23개소에 100만 원 상당의 백미 23포를 전달했다.

이는 정이 넘치는 농촌 공동체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복원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바람을 담아 추진됐다.



[삼서면]

정월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지난 2월 정월대보름을 맞아 삼서면에서는 청년회(회장 류홍선) 주관으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악공연,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올 한 해 풍년농사와 면민들의 안녕, 삼서면의 번영을 염원하는 풍등에 날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복나눔봉사회, 경로잔치 열어



행복나눔봉사회(회장 강기환) 회원들이 삼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봉사회는 이날 150여 명의 어르신을 초대해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삼계면]

주민들이 준비한 100세 생일상

지난 4월 초 생촌2리 생촌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생일잔치가 열렸다. 이날의 주인공은 올해 100세 생일을 맞은 민경식옹. 민경식옹은 생촌마을에서 100세를 맞은 첫 번째 어르신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축하잔치를 준비하고 민옹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황룡면]

정월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지난 정월대보름 황룡강 둔치공원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렸다.

황룡면청년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해 달집을 태우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주민 간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황룡시장상인회, 재발족 1주년 맞이 시장 대청소



황룡시장상인회가 재발족 1주년을 맞아 시장 내 환경정비에 나섰다.

지난 3월 상인회 및 면사무소 직원 등 50여 명이 함께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물청소를 하는 등 시장 일대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대설피해농가 응급복구 일손돕기

지난 겨울 대설로 하우스 붕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황룡면 예비군 면대와 공직자 12명이 비닐 제거 등 복구활동을 펼쳤다. 대설이 내리던 당시 하우스 소유주 부부가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 소식을 들은 예비군 면대원과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휘어진 파이프를 정리하고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옐로우시티를 향한 식목일 행사



지난 3월 황룡면사무소 직원들과 해주아파트 자치회원 등 30명이 식목일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해주아파트 앞 가로화단을 이용해 옐로우시티에 걸맞은 개나리 500주와 금계국 500본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주)가온에프에스, 사랑의 연탄 기증



황룡면 소재 기업인 (주)가온에프에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연탄 3,000장을 기증했다. 기증된 연탄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10세대에 각각 300장씩 전달됐다.

[서삼면]

무사안녕기원 정월대보름 맞이 화합한마당

지난 2월 서삼면의 세포마을에서 대보름 맞이 행사가 열렸다.

이날 마을 주민들은 미리 준비한 오곡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고, 해가 지자 대나무와 벚짚으로 만든 달집을 태우고 한 해 소망을 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백산악회, 축령산에서 등산객 안전 기원



서삼면 등산동호회 '한백산악회' (회장 선만순)가 지난 2월 축령산 임종국 선생 기념비 앞에서 시산제를 올렸다.

회원 20여 명, 면 공직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해 간 음식을 차려 놓고 제를 올리며 축령산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했다.

구당 김남수 선생, 금계리 신평마을에 방송시설 기증

금계리 신평마을에서 침술원을 운영하는 구당 김남수 선생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 방송용 앰프와 노래방 시설, CCTV 등 41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기증했다. 마을에 방송장비가 없어 주민들에게 군~~위~~면정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마을 이장에게 전해 들은 구당 선생은 흔쾌히 기증의사를 밝히고 마을회관에 이 같은 시설을 설치했다.

서삼면 주민, 황금개나리길 조성

서삼면청년회, 사회단체, 주민, 공무원 등 60여 명이 힘을 모아 서삼면사무소 앞 축령산으로 가는 도로변 0.5km 구간에 황금개나리 700여 주를 식재했다. 이는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한 서삼면 주민들의 첫 움직임으로 이후 주민들은 유희지에 금계국을 심고, 축령산 산소축제장 주변에 메리골드, 백일홍, 해바라기 등 다채로운 꽃을 식재할 예정이다.



[북일면]

북일청장년연합회, 사랑의 소화기 전달



북일면 청장년연합회(회장 최복상)가 관내 경로당에 사랑의 소화기를 전달했다.

청장년연합회는 경로당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를 구입, 지난 3월 지역 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소화기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북일면장학회, 장학금 전달



북일면장학회(회장 이봉기)가 지난 3월 북일면 출신 대학생 3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각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전달했다.

북일면장학회는 사회단체장과 북일면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986년 처음 결성된 이후 30년째 지역 내 중~~학~~고~~학~~대학생 총 80여 명에게 총 4,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일조하고 있다.

[북이면]

(주)한남세라믹 임직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북이면 소재 기업체 (주)한남세라믹의 김봉찬 대표와 임직원 일동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12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북이면에 전달했다.

(주)한남세라믹은 전기전자 부품용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는 건설한 지역기업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돕기에 참여해오고 있다.



엘로우시티 추진협의회 발대식



지난 3월 북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북이면 엘로우시티 추진협의회’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지역 이장단 및 기관 ~~장~~사회단체장, 주민 50여 명은 ‘함께해요! 엘로우시티 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북이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엘로우시티 장성의 대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모현리 주민, '옐로우 마을 만들기' 앞장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 모현리 류중원 이장과 주민들이 옐로우 마을 만들기를 위해 마을길 정비를 실시했다.

모현리는 '올해의 북이면 옐로우시티 시범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류 이장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마을 입구에 화단을 조성하고 꽃씨를 심었다.

[북하면]

고불총림 백양사 생명살림기금 전달



지난 2월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생명살림 기도법회'가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스님)에서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신도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법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생명을 담고 있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공덕을 강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청정한 국토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조계사에서는 백양사가 위치한 가인마을을 비롯한 주변 마을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생명살림기금 1,000만 원을 북하면이장단협의회(회장 이동주)에 전달했다.

면단위 최초 옐로우시티 추진협의체 구성



북하면이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장성' 만들기를 위해 면단위로 처음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일방적인 행정 주도에서 벗어나 옐로우시티 구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해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10회 장성백양 고로쇠축제 성료

지난 3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청정 고로쇠!'라는 주제로 열린 제10회 장성백양 고로쇠축제가 성료됐다.

남창계곡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 무대행사를 통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치러졌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웃사랑 대청소' 실시



4월 1일 북하면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회장 남 조귀동, 여 전해경), 북하면여성자원봉사회원(회장 김옥희), 마을주민 등 30여 명은 북하면 신촌마을(이장 박충렬) 주택 내 7년여 동안 쌓여있던 약 1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악취에 시달렸던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실천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인 성

생강이야기

생강은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자 한약 처방에서도 귀중한 약재이다. 그러나 생강이 우리 몸에 들어와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의서와 여러 방면에서 거론된 논거들을 종합 인용 ~~한~~ 정리해 누구나 생강의 약리 작용을 알고 유용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본다.

전)대한한약협회 학술위원장(사거리 한약방)

한의학서에는 생강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강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이 매우나 독이 없다. 감기 몸살이나 발열에 땀을 내어 풀어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하며 습기를 없애주고 구역질을 멎게 한다. 폐를 보하여 담을 삭이고 기침을 그치게 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공개된 생강의 효능은 놀랄 만큼 많은 부분에서 유익하다고 알려져 각광을 받기에 이르게 됐다.



효능

- 감기 몸살 (코막힘) 발열 기침 가래를 멎게 한다.
- 속이 냉하여 나오는 구역질에 사용하고 임신부의혈중 콜레스테롤을 정화하여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
- 찬 몸을 따뜻하게 해 추위를 이기게 하는데, 여성에 몸 안을 깨끗하게 하고 우울증도 예방한다.
- 게 더욱 좋다.
- 소화흡수력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한다.
- 몸 속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잔병치레를 예방한다.
- 어지러움과 현기증을 예방한다.
- 신진대사 기능을 도와 수분을 조절하고 부기를 덜어준다.

활용

- 생강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나쁜 냄새를 없애고 정신을 맑게 한다.
- 생강을 달여서 차처럼 수시로 마시면 힘이 나고 몸이 훈기가 돈다.
- 생강을 끓인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足浴)을 자주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 현미식초에 넣어서 만든 생강식초는 건강을 돌운다.
- 흑자는 고혈압 당뇨에도 좋다고 하였으나 생강식초 외에는 권장하지 않는다.

주의

- 인삼 녹용도 체질과 병세에 따라 오히려 화를 불러 오기도 한다. 생강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력이 있지만 열이 많은 체질에는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다.

Tip

- 생강식초 만들기 - 현미식초를 15분 정도 끓인 뒤에 생강 껍질을 벗기고 썰어서 담아 놓은 그릇에 가열한 식초를 붓는다. 유리병에 보관하고 물4, 식초1의 비율로 희석하여 수시로 복용한다. 이는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에 좋다. 또한 아미노산,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비만을 치료하며 피부를 건강하게 해준다.
- 치질 등이 있으면 섭취를 삼가고, 혈압이 높으면 주의한다.
 - 껍질은 성분이 차기 때문에 벗겨내고 사용한다.
 - 임신부도 약용이 아니면 오래 먹는 것은 주의한다.

노인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사업

「노인 단기보호 서비스」는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201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높 지원대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노인장기요양보험(1~5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 홀몸노인으로 재가급여를 받고 있으나, 노인성 질환으로 단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보호자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보호자나 가족의 질병, 직장, 여행, 휴가 등으로 단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높 비 용

- 일반노인 :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15%

높 지원내용 : 연중 210일(매월 15일씩) 단기 보호 이용가능

- 기초수급자 : 무료

높 이용문의 : 효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061) 392-9700)

※ 문의 ☎ 061) 390-7342 (장성군 주민복지과)

치매 조기검진 안내

높 치매선별검사

- 기 간 : 연 중
- 대 상 자 : 만 60세 이상 희망자
- 검진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검 진 비 : 무료

높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지원

- 대 상 자 : 치매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중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

- 협약병원 : 장성병원,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 검사항목

- 진단검사 : 신경 인지검사, 우울검사 등

- 감별검사 : 의사진료, 혈액검사, 소변검사, C T검사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직장가입자	50,632	96,971	139,418	158,610	166,694	175,489
지역가입자	29,738	102,794	156,136	177,161	185,270	194,298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문의 ☎ 061) 390-8374 (장성군 보건소)

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 추진 안내

▶ 추진배경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준 재설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 추진

▶ 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 추진 : 2015. 12. ~ 2018. 3.

-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농가가 직접 지적측량 신청)
 - 군청민원실,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설계사무소 등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자진신고서 작성 후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
- 이행강제금 계고 후 부과시 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 신고·허가(군청 민원봉사과)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군청 환경위생과)
- 축산업 허가 변경 신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높 사 업 량 : 334동

높 지원범위 : 주택(부속사, 창고 포함)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및 처리비용

높 지원금액 : 336만 원/동(국비 168만 원, 도비 33만 원, 군비 135만 원)

- 지원금액(면적) 내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 지원금액(면적) 초과 시 자부담 비용 소요
- 주택 건축물 전면 철거가 아닌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교체)만 할 경우에는 지방비 지원금액 범위(168만 원)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 처리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지붕개량(교체)비로 지원 가능

높 신청 및 진행 절차

- 해당 읍 ~~₩~~ 면(주민복지담당)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 ~~₩~~ 면), 건축물대장, 슬레이트 지붕 사진 1부
- 사업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개별 연락 후 면적 사전조사 진행
- 면적 조사 완료시 철거 및 운반 · 처리작업 진행

높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 신청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336만 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합시다

쓰레기 분리배출	배출요일	배출 방법
일반쓰레기	월 ~ 금	종량제봉투에 담아 거점장소에 배출
		재활용용품으로 파란색 비닐봉지 또는 박스에 담아 배출
대형폐기물	월 ~ 금	※읍·면 소재지 외 지역은 별도 요일에 수거
음식물쓰레기	월, 수, 금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음식물 수거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읍·면 소재지 외 지역은 종량제봉투 사용

• 재활용품 : 종이류, 종이팩, 병류, 캔, 고철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보건소 등에
패악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의류 등

• 대형폐기물 : 장롱, 소파, 책상, 식탁, 피아노, 매트리스, 변기 등

※ 소·돼지·생선의 뼈, 조개·굴 껍데기, 달걀껍질, 한약재 찌꺼기,
차 찌꺼기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 수거일 : 매주 월요일

• 대 상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 제품
(컴퓨터, 핸드폰 등 소형가전제품 병행 수거 가능)

※ 폐가전이 훼손된 경우(부품도난 등)는 무상 방문수거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 : 방문수거 1일 전 예약

- 콜센터 (☎1599-0903), 인터넷(www.edtd.co.kr)